

# 教育資料 開發에 關한 研究 I

金 隆 一

〈聖心女大 社會事業學科 教授〉

## 目 次

I. 序 言	V. 作品活用の 評價
II. 社會事業의 本質과 藝術	VI. 結 語
III. 社會事業 教育에서의 文學作品 活用の 有用性	參考文獻
IV. 文學作品의 選擇基準과 活用事例	

## I. 序 言

우리나라의 社會事業教育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問題들 중의 하나가 現存 社會事業教育을 우리의 現實에 適實한 것으로 만드는 土着化(發掘化) 作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우리의 社會사업 教育歷史가 짧은 것과 社會사업에 대한 社會的 認識不足으로 인한 社會的 期待와 支援 缺與 및 보다 직접적인 原因으로는 '50年代를 중심으로 美國 大學院 중심의 技術論的 社會事業을 충실히 받아 들여온 데서 結果된 韓國 社會事業의 非適實性 및 非效果性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UN에서 펴낸 한 報告書에서도 오늘날 아세아의 社會사업 教育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教育問題들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 개개인에게 意義가 있을 수 있도록, 국가의 發展的 欲求나 問題 및 固有의 文化遺産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한 마디로 “教育課程의 土着化, 教育者의 土着化, 教育資料의 土着化”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아 諸國의 社會사업 教育계가 '70年代에 들어 서서 研鑽會 등을 통해 관심을 보이기

1) 南世鎭은 “韓國社會事業 教育課程 開發을 위한 研究”, 韓國社會福祉, 1975년 5월 號에서 韓國 社會事業의 主體性 缺與 이유를 ①世界의 社會事業界에서 美國의 地位가 鞏固하고 ②精神分析學의 發達로 인한 技術論的 優勢, ③ 1950年代의 韓國의 社會事業 教育界가 미국의 物的, 人的, 技術的 後援을 받아 基礎를 形成했고 이 때를 中心으로 大部分의 教育者들이 美國留學을 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2) UN, *Asian Creative Literature in Social Work Education: A Review of Eight Country Workshops*, 1975, p. 1

의 教育資料들의 대부분이 原書(주로 英文)나 번역서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現實은 우선 학생들에게 외국어에의 熟達을 요구하나 특히 大學水準의 학생들에게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사업은 재미없는 학문이 되기 쉽다. 설사 이 難關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돌파해야 할 關門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生疎한 組織, 慣習, 價値, 熟語 등으로 反映되는 西歐文化와의 씨름이다. 이것은 西歐의 방법을 東洋에 무분별하게 떠맡기는 것으로서 아주 다른 歷史的, 文化的, 哲學的, 社會經濟的 背景에서 生成되어 완성된 理論的 模型과 體系에 아세아의 社會的 問題와 爭點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위험한 試圖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現存 社會事業의 哲學, 方法, 技術, 人間과 社會의 理解 科目들에 대해 재검토함으로써 土着化된 教育資料의 體系的 開發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土着化된 고유의 教育資料의 基本적 開發方法에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 그 하나가 行動調査(action research)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가 文學作品을 활용하는 方法이다.<sup>4)</sup>

이 두가지 方法중에서 文學作品을 活用하는 問題가 우리나라 社會事業界의 경우, '70年代에 들어서면서 擧論되기 시작해서 '72年 일부 敎授들에 의한 집중적 研鑽會를 거쳐 '73年 실제로 작품을 활용한 研究結果가 發刊되었다.<sup>5)</sup> 그러나 이것을 分岐點으로 하여 이 課題에 대한 계속적 연구는 終止符를 찍는 결과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研究努力이 교육자는 물론 학생측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社會事業 敎育界가 주로 관심을 쏟았던 문제가 外援의 減小와 撤收 등에 기인하는 社會事業學科 卒業生의 人力需要 激減으로 야기된 緊張과 活路開拓의 艱難으로서 보다 절실했던 敎科課程의 土着化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教育資料 土着化를 위한 文學作品 活用努力의 斷絶을 극복해서 현재의 敎科課程 土着化 努力과 並行, 調和시켜야겠다는 생각이 本稿 執筆의 動機가 되었다.

文學作品 活用을 통한 教育資料의 개발에는 土着化이상의 意義가 있다. 교육자료가 어떤 구체적인 教育目標과 教育對象을 위해 선택되고 考案된 즉, 教育效果를 높이기 위한 手段 일진대 교육자료가 이미 土着化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작품의 활용은 教育效果를 높이기 위해 역시 필요하다. 이미 교육자료가 土着化되어 있다고 前提되는 西歐의 敎育界가 여전히 문학작품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常存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韓國 社會事業 教育資料의 土着化를 위함은 물론, 教育效果를 높이기 위해 사회사업 교육자료로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意義가 있으며 얼마나 妥當할 수 있는가를 考察해 보는 데 그 目的이 있다.

3) Ibid., p. 2

4) Ibid., p. 3

5)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編, 文學과 社會事業, 1973.

## II. 社會事業의 本質과 藝術

우선 文學作品 活用の 主體로서의 社會事業의 本質을 알아 봄으로써 活用の 根據를 찾아야겠다.

사회사업은 個人과 社會制度 사이에 위치해서 個人이 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돕는 동시에 人間의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修正하려고 노력하는 意識的이고 신중하게 그리고 意圖的으로 計劃된 變化努力으로서, 關心의 焦點은 人間이 된다.<sup>6)</sup>

마주어 말하면, 社會事業은 生活課業을 成就하는 能力, 苦痛을 없애는 능력 및 꿈과 價値를 實現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環境과 人間사이의 相互作用에 관심을 두고 (1) 人間의 問題를 해결하고 處理하는 능력을 向上시키고, (2) 人間을 資源, 서비스, 機會의 提供 體系들과 연결시키며, (3) 體系들의 效果的이고 人道主義的 운영을 증진시키고, (4) 社會政策의 開發과 改善에 공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計劃된 變化努力이다.<sup>7)</sup> 이런 목적과 기능을 가진 社會事業은 다른 專門職과 마찬가지로 科學임과 동시에 藝術이나<sup>8)</sup>, 主題(理論)로서는 科學이며 實際(實踐)로서는 藝術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사회사업은 그 屬性이 道(眞值 또는 倫理)와 知識 및 技藝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知識과 直觀을 社會學, 經濟學, 政治學, 心理學, 精神醫學, 人類學, 生物學, 史學, 法學, 教育學, 哲學과 같은 여러 學問分野로 부터 끌어냈지만 이 知識들을 社會事業은 고유의 科學으로 종합했다.<sup>10)</sup>

다른 사람이 변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創意力, 꾸밈없는 感情, 個性, 關心, 사랑 등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이것들이 人間行動과 社會環境 및 變化過程에 대한 知識體系, 技術과 節次를 이용하는 노련한 力量,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며 變化努力에 대해 체계있는 指針을 제공하는 問題解決 方法과 결합될 필요가 있어서<sup>11)</sup> 科學과 藝術은 서로 敵對的이라기 보다는 서로 돕는 友好的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社會事業家는 業務面에서 그들 도와 줄 여러 유사한 가정 및 학교와 일한 경험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고 問題解決 方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의 創造性과 直觀을 필요로 할 문제의 고유한 면이 있을 것이다. Eaton은 社會事業 實踐에서 알 수 있는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人間問題 解決에 있어서 研究나 經驗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無知와 誤謬의 領域이 존재한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1) 모든 사람과 같고, (2) 몇몇 사람과 같고, (3) 아무와도 같지 않다

6) Romanyshyn,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 1971, p. 55

7) Pincus and Minahan, *Social Work Practice: Model and Method*, 1973, p. 9

8) Friedlander and Apte,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1974, p. 5

9) Stroup, *Social Work: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1960, p. 3

10) Friedlander and Apte, op. cit., pp. 5~6

11) Pincus and Minahan, op. cit., p. 34

다.<sup>12)</sup>고 했다.

그러므로 社會事業家는 知識과 技術로 문제를 이해하며 적절한 介入方法을 선택하는 동시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데는 그의 創意性과 直觀이 필요한데, 그 까닭은 知識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으며 狀況은 자기 고유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sup>13)</sup>

社會事業家는 자신의 技術과 知識을 갖고 實務에 임하는 동시에 그 자신의 性格, 價値觀, 生活樣式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된다. 만약 社會事業家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한다면 그는 기계적인 技術者와 같아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問題解決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만약 그가 지식과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社會事業家는 관심이 많은 아마추어와 같은 수준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事業 實際에 있어서 知識(科學)과 藝術사이의 敵對關係를 假定하기보다는 한 쪽이 다른 쪽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sup>14)</sup>

要約하면, 社會事業은 變化對象으로서의 人間과 社會 및 이들의 變化 方法과 技術에 대한 科學(知識)을 社會事業家가 그의 全人格을 사용해서 실제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는 물론, 이 知識自體를 풍부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藝術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 藝術의 한 分野로서의 文學作品을 社會事業의 教育資料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社會事業의 本質에서 찾아 보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文學作品 活用이 社會事業教育에 어떤 意義가 있는가를 考察해 본다.

### Ⅲ. 社會事業 教育에서의 文學作品 活用の 有用性<sup>16)</sup>

1. 文學은 人間과 現實을 하나의 全體로서 理解할 수 있게 하고 人生의 齊一性을 볼 수 있도록 한다. 人生은 個體임과 동시에 全體로서 科學과 藝術 모두가 이 現實을 把握하는데 필요하다.

현재 社會事業 教育은 주로 科學文化를 強調하는 경향이 있어서 社會科學의 調查結果나

12) Eaton, "Science, Art, and Uncertainty in Social Work," *Social Work* 3 (July 1958), p. 3

13) Pincus and Minahan, op. cit., p. 35

14) Ibid., pp. 35~36

15) Royce는 *The Encapsulated Man: An Introductory Essay on the Search for Meaning*, 1964, pp. 11~25에서 人間の 基本的 心理過程을 生覺하는 것(thinking), 느끼는 것(feeling), 知覺하는 것(perceiving), 믿는 것(believing)으로 보고 이것들이 각각 合理主義, 直觀主義, 經驗主義, 權威主義의 認識論으로 發展했다고 하면서 科學은 그 主된 認識方法으로 合理主義와 經驗主義를, 藝術은 直觀主義를, 宗教는 學問적인 의미에서 合理主義와 直觀主義를 쓰고 있다는 것을 圖式을 통해 說明했다.

16) UN의 前掲書와 張仁協, "文學作品을 통한 社會事業教育", 社會事業大學協議會編, 前掲書에 提示된 環圖를 準據

個人과 集團 및 地域社會와 일한 데서 얻어진 分散된 事例 및 實踐에서 얻어진 智慧에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環境에 關係를 맺고 있는 人間의 深奧하고 感動的인 人生經驗의 현실을 파악하기에 充分하지 못하기 때문에 藝術文化를 필요로 한다. 일찌기 Lee는 “가장 훌륭한 社會事業家는 그들이 돕고 있는 사람들과 豊富한 人生經驗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데, 많은 社會사업가들이 스스로 經驗했던 人生과 그들이 돕고 있는 사람들의 人生 사이에 견고한 線을 긋는다”고 말하면서 그 理由를 “俗人根性”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人生의 根本的 齊一性이나 모든 人間關係에는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 強化시키고, 安定시킬 意義가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는” 탓으로 돌렸다.<sup>17)</sup> Boehm도 “人間을 원조하는 職業은 모두 人間을 하나의 全體로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sup>18)</sup>

이와같이 人間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科學文化와 藝術文化 모두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가지 文化가 서로 代替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19)</sup>

김현은 文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文學이 人間을 總體的으로 제시하는 唯一한 分野는 아니지만 가장 代表的인 分野임에는 틀림없다. 人間을 그 對象으로 다루고 있는 人文科學은 그러나 人間의 어느 한 面만을 연구하고 관찰한다. 社會學은 人間과 社會와의 關係를, 心理學은 人間の 心理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그러나, 文學을 비롯한 모든 藝術은 人間을 總體的으로 다룬다. 文學은 어떤 개인이 人間の 한 측면만을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人間을 皮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악할 지도 모를 短點을 막고 人間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sup>20)</sup>

金炳翼은 文學과 科學의 關係를 아래와 같이 說明한다 :

“인간을 주제로 하되 社會科學과 文學은 서로 반대되는 끝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과학이 人間을 原子化시킴으로써 包括性이 前面으로 나서는 반면, 文學은 人間個體를 크로즈업하여 社會의 포괄적인 面이 背景으로 후퇴된다. 積分된 社會科學의 世界는 普遍性을 前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微分된 文學의 世界는 자기 주장을 드러냄으로써 普遍的 共感을 얻는다. 따라서 社會科學이 타스·웨버가 말하는 沒價値性에 根據를 두고 있지만 文學은 價値創造에 기본적인 意味를 두고 있다.”<sup>21)</sup>

“文學은 人間을, 科學은 社會를 探究對象으로 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

17) Lee, *Social Work as Cause and Function*, 1917, pp. 78~79

18) Boehm, “The Nature of Social Work,” *Social Work* 3 (April 1958), pp. 13~14

19) Coser는 *Sociology through Literature: An Introductory Reader*, 1963, pp. 3~4에서 小說이 體系的으로 累積되고 證明된 知識의 代替役割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文學的 直觀이 科學的이고 分析的 知識을 代替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李明賢은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特殊性과 普遍性 공허한 概念的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文學과 知性, 1978, 봄호, pp. 128~130에서 科學은 事實에 관한 探究이며 藝術은 價値에 관한 탐구로서 이 兩者는 서로 동일한 역할을 遂行하는 경제적인 關係에 있지 않고 자기 다른 役割을 하는 것으로 把握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두개의 人間精神活動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을 混同하는 하나의 輕率談話라고 했다.

20) 김현, “文學이란 무엇인가”, 김현外編, 文學이란 무엇인가, 1977, pp. 23~29

21) 金炳翼外, 現代韓國文學의 理解, 1977, p. 25

은 어쩔 수 없는 社會的 動物이며 따라서 兩者는 인간으로 구성된 社會, 사회를 이루는 人間을 이해하는 表裏의 關係에 있다.”<sup>22)</sup>

社會事業 敎育에서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는 社會事業家의 專門的 成長은 全人的 成長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確認된 知識을 소극적으로 吸收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한 經驗資源들을 포섭하는 것이다. 즉, 社會事業家의 人生經驗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거나 모든 것, 그가 보고, 듣고, 느껴온 것, 그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원해 온 것, 그를 원속하게 만든 슬픔, 그를 가슴 벅차게 한 즐거움, 그가 모방해 온 것, 그를 파멸시킨 실패, 그를 고무시킨 성공 등의 모든 것들과 더 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專門的 社會事業 敎育과 實際가 주는 知識과 態度 및 技術과 함께 그의 人生에 統合된다.<sup>23)</sup> 社會事業에서 “專門的 自我”의 活用이란 것은 없으며 단지, 自我, 全體의 自我, 全體의 人間을 專門的 方法으로 使用할 뿐이다.<sup>24)</sup> 전문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의 實際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그의 全體의 自我이다. 이런 全體의 自我에 대한 自己認識이 前提될 때 전문적 成長을 達成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사회사업가가 人으로서의 自己自身은 물론, 社會에서의 여러가지 役割과 社會的 機能遂行에서의 人間을 더욱 잘 理解할 수 있게 해 주는 知識源의 하나인 藝術로서의 文學을 충분히 探究하고 批判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社會事業 敎育과 實際에 統合할 필요가 있다.

2. 文學은 人間的 狀況을 느낄 수 있게 하고, 情緒적으로 同一視할 수 있게 하며, 때로는 社會構造的 問題, 病理, 危機 및 필요한 社會變化를 暴露하고 提示한다.

社會事業은 社會에서의 人間과 그의 行動에 대한 知識을 얻기 위해 주로 心理學, 社會學, 生物學에 依存해 왔지만 文學도 많은 것을 提供한다.

白鐵은 文學的 認識에 關係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

“文學的인 認識은 그 特質이 感覺的인 것이다. 作家가 觀察, 思考하는 對象이 外界事物인 때는 물론이고 그것이 觀念인 때에도 그 觀念에 대한 作家의 파악은 거기에다 形體를 주어서 思考하는 것으로 된다. 다시 말해서, 文學의 認識과 思考는 感覺이요, 心像이다. 그 인식이 감각적이기 때문에 文學의 세계는 다른 學門의 知的인 인식에서와 같은 지식의 世界가 아니고 感情과 情緒의 世界다.”<sup>25)</sup>

大學水準의 社會事業 專攻學生들이 갖고 있는 問題들 중의 하나는 그들의 大部分이 우리 的 現實에서 적어도 中産階級 이상의 出身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知的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例를 들어, 貧民들의 문제와 欲求를 精달로 理解할 수 있느냐에 있다. 學生들로 하여금 貧民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方法, 더 나아가서 社會事業家가 被助者들이 問題에 대해 실제로 느끼는 것을 共感할 수 있게 만드는

22) Ibid., p. 26

23) Finnegan, "Great Literature and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Education Reporter* Vol. XIV, No. 3 (CSWE, September 1966), p. 47

24) UN, op. cit., p. 5

25) 白鐵, 文學概論, 1964, p. 14

한 가지 좋은 方法은 實習教育을 통해서이겠으나 실습의 可能範圍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文學作品은 被助者의 生活과 광범하고 다양한 環境問題들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文學作品을 活用함으로써 中産階級 이상의 社會事業 專攻學生들이 그들의 實習地나 卒業後 就業地에서 전혀 만나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광범한 사람들에 대한 感受性을 기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Clear는 “수 많은 課題報告齣를 학생들이 써 내지만 가장 博識한 報告齣를 써낸 학생은 社會問題가 그것으로 인해 犧牲된 사람들의 人生에 어떤 意味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것과는 距離가 멀 수 있다. 中年의 家長에는 失職이 意味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最善의 方法은 그 當事者가 되어보는 것인데 이런 直接的 經驗은 불가능할 때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次善策으로서 그와 同一視할 수 있게 하고, 그와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方式으로 자기의 意思를 표현한 傳記나 小說을 이용함으로써 可能한 그의 經驗에 밀접하게 接近하려고 한다. 우리는 社會問題에 관련된 對象을 學問적으로 이해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犧牲者를 만나서 그들과 情緒적으로 同一視함으로써 局外者로서 할 수 있는만큼 문제를 경험하려는 것이다.”<sup>26)</sup>라고 말하고 있다.

文學을 읽고 活用하는 것은 學生들에게 그가 느낄 수 있고 직접 살아 볼 수 있는 人間狀況에 대한 經驗을 줄 수 있다. 그러나 心理學, 社會學, 哲學에서 이와같은 價値의 反應을 얻을 수 없는 理由는 人間經驗을 概念的, 理論的, 分析的으로 考察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人生經驗을 여러 構成要素로 分解해서 그들을 構造와 體系로 통합한다. 이것은 經驗과 교육 및 學習에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方法이며 社會사업 교육도 계속 이 經驗과 方法에 依存해야 하겠지만 똑같이 必須的인 것은 生생한 經驗(lived experience)에 의존해서 人間을 이해하는 것이다. 知識의 論理的 구조가 지적하고 있고, 根據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생생한 經驗이다. 이 생생한 經驗은 概念들만으로는 일깨워질 수 없으며 情緒的 樣式들을 불러 일으키는 具體的 人生의 상황들을 表現하기 위해 創造的 想像力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sup>27)</sup>

李東烈은 小說의 社會學的 理解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설의 내용과 형식은 映寫를 제외한 다른 어떤 藝術의 내용과 형식보다 社會現象에 더욱 밀접하게 참여하며 人間の 불가피한 歷史的, 社會的 條件의 意味와 價値를 다른 어떤 藝術보다 더 직접적으로 밝혀 주며 문제삼는 예술이다.”<sup>28)</sup>

소설에서 社會的 要素의 尺度가 되는 것은 個人的 要素로서 소설 속에서 社會와 社會生活과 社會的 關係 現實은 복수한 개인들에게 집중되어서 나타난다.<sup>29)</sup>

소설의 人物은 어떤 秩序, 어떤 階級體系,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에 알맞는 어떤

26) UN, op. cit., p. 10

27) Ibid., p. 7

28) 李東烈, “小說의 社會學的 理解—미셀 제라와의 경우”, 世界의 文學, 1976, 여름호, p. 176

29) Ibid., p. 179

申東旭도 이렇게 쓰고 있다 :

“소설속의 한 人物의 社會的 要望은 곧 그 人物의 集團과 階層의 代表적인 要望인 수가 많다. 이때 小說家의 創造的 想像力은 社會的 想像力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그리고 소설속의 人間들은 本人때문이거나 環境때문인 여러 종류의 個人問題와 社會問題들과 투쟁하고, 이 문제들에게 克服되거나 이 문제들을 극복한다.

小說家들은 때때로 社會科學者나 政治指導者들이 危機의 本質이나 含意를 충분히 인식하기 前에 社會趨勢나 變動을 豫見하거나 同行하며, 개인의 人間的 위기나 그 시대의 사회적 위기를 暴露한다. 위대한 소설가들은 人間의 尊嚴性이나 善良함 및 價値에 대한 思想을 그의 作品에서 보여 주기도 한다.<sup>32)</sup>

3. 文學作品의 形態와 內容으로서의 言語는 社會事業의 教育資料를 土着化 시키는데 參與한다.

文學은 言語를 媒體로 하여 現實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人間精神의 한 樣相이다.<sup>33)</sup>

教育資料의 土着化에서 文學은 고유의 役割을 遂行한다. 이 고유의 역할은 형태로서의 言語와 관계가 있어서 社會事業의 이론과 실제의 경험을 고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sup>34)</sup> 그러나 言語는 形態일 뿐만 아니라 內容이다. 가장 효과적인 언어의 使用은 思考, 意味, 感情 및 事物의 本質을 表現하는 最善의 方法과 關係가 있다. 內容으로서의 言語의 사용은 그것을 사용하는 技術을 포함하는데, 이 기술은 바른 말과 象徴과 主題를 선택해서 인간의 생생한 피부 가슴의 고통을 파악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주도록 言語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 일은 作家들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 그들은 간결하고 신선하고, 정확하고, 활기있는 言語를 驅使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sup>35)</sup>

선택은 言語에 대해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

“들이나 膏銅이 조각의, 물감이 繪畵의, 소리가 音樂의 재료인 것처럼 言語는 文學의 재료이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不活物質이 아니라 그 자체가 人間의 創造物이며 따라서 言語集團의 문화적 遺産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sup>36)</sup>

社會事業家들은 社會사업 이론을 가르치기 위한 手段의 하나로서 그 나라 固有의 언어와 작가에 의존할 需要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社會事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가 서있는 位置에서 出發할 수 있으며, 옛 것 위에 새 것을 構築할 수 있고, 輸入品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의 生活, 欲求, 問題, 그리고 祖國, 文化, 思想에 力動的으로 연

30) Ibid., p. 181

31) 申東旭, 文學의 解釋, 1976, p. 93

32) UN, op. cit., p. 6

33) 김현外編, op. cit., p. 1

34) UN, op. cit., p. 7

35) 張仁協, op. cit., p. 12

36) 르네·셀렉(金炳烈譯), 文學의 本質, 김현外編, op. cit., p. 6



4. 文學은 社會事業家들에게도 必要한 意思疏通 技術로서의 作家의 描寫技術에 대한 研究機會를 提供한다.

作家들이 사용하는 觀察技術과 描寫技術에 대한 研究分析은 전문 社會사업가에게 대단히 중요한 意思疏通의 技術을 發展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sup>37)</sup> 社會事業家는 有形的인 것에 대해 銳利한 觀察者가 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氣質, 情緒, 感情, 言語와 象徴 및 行動의 背景에 있는 의미와 같은 無形的인 것도 보다 傳達할 수 있는 能力을 가져야 한다. 가장 잘 보고, 認識하고, 知覺하기 위하여 類似點, 差異點, 強調點, 直觀, 제스처, 色彩, 細部 등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觀察藝術의 技術이다.<sup>38)</sup> 현재 社會사업 교육제에서 觀察對象과 方法에 대해 교수되고 있는 것을 補完하기 위해 拔萃된 文學作品이 活用될 수 있는 것이다.

社會事業家들의 記錄과 文章이 그들이 관계하는 人間과 集團의 퍼스널리티(個性), 欲求, 特性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社會사업가가 훌륭한 作家만큼 意思疏通에 능숙할 것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人生의 溫氣와 科學의 秩序를 그의 記錄에 붙여 넣을 수 있는 方法을 알아야만 한다.<sup>39)</sup> 느낌으로 볼(see feelingly)<sup>40)</sup> 수 있는 方法을 훈련한다는 것은 觀察藝術의 技術의 一部로서 社會事業과 文學이 共有하는 目標이다.

作家들이 사용하는 여러가지 묘사기술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專門職의 多目的 관찰과 기록에 대한 高유의 技術을 발전시키기 위해 社會사업 전공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힘든 과업을 代替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의 관찰과 묘사의 기술에서 얻은 直觀들은 社會사업가들이 記錄과 執筆에 정통해지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道具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기록과 報告의 技術을 발전시키기 위해 作家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은 個人, 集團, 地域社會와 일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社會行動, 社會改革의 手段으로서의 社會事業을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에게 解說해 주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sup>42)</sup>

37) UN, op. cit., p. 8

38) Finnegan, op. cit., p. 45

39) Leavitt and Sohn, *Stop, Look and Write!*, 1964, p. 2

40) Finnegan, op. cit., p. 45

41) Alan Cass는 한 出刊되지 않은 研究에서 "느낌으로 본다는 말은 狀況에 대한 統制되고 理性的인 反應으로서의 訓練이란 意味로 생각되며, 직관적 느낌으로 본다는 말은 거의 반대 의미로서 即刻의 理解나 論理性 없는 마음에 의한 洞察을 示唆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UN, op. cit., p. 41

42) UN, op. cit., p. 9

## IV. 文學作品的 選擇基準과 活用事例

### 1. 選擇基準

文學作品은 3가지 次元에서 選擇될 수 있겠는데 첫째는, 社會事業教育에 有用할 수 있는 作品의 主題中心으로, 둘째로, 社會事業家가 돕는 被助者 集團과 그들이 當면한 問題中心으로, 셋째는, 學生들의 學習欲求를 고려하여 選擇하는 것이다.<sup>43)</sup>

R. Tylor는 教育資料란 教育效果를 높이기 위한 手段으로서 다음의 質問들에 對答하는 思考過程의 產物이라 했다.

- 1) 教科目 全體의 教育目標는 물론, 教科目部分單位의 教育的 目標는?
  - 2) 教科目的 內容은?
  - 3) 學生들이 누구이며 學習經驗에 個人으로나 集團으로 지니고 오는 것은?
  - 4) 感情, 知識 및 技術에 關係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變化는?
  - 5) 學習單位나 段階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 選擇되어야 할 教育資料는?<sup>44)</sup>
- 印度의 社會事業 研鑽會에서 結論으로 提示된 基準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45)</sup>

1) 文學作品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教育資料에 적용할 수 있는 一般的基準

- ① 作品이 科目이나 科目의 下部單位의 教育的 目標와 關係이 있는가?
- ② 作品이 現在나 未來의 社會事業 教育과 關係이 있는가?
- ③ 作品이 現在나 未來의 社會事業 實際와 關係이 있는가?
- ④ 選擇된 作品의 技術적 優秀性은 어떠한가 하며 훌륭하게 執筆 및 集中되어 있는가?

2) 文學作品을 活用하는 具體的 基準

- ①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로 하여금 共鳴의 경험을 갖기를 원할 때,
- ②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로 하여금 革新的 行動의 發端으로 創意力이나 想像力을 活用하기를 원할 때,
- ③ 가르치는 사람이 專門家的 態度를 갖추게 하는 基礎로서 一定的한 社會問題에 對한 順序한 태도에 關係 학생들로부터 反應이 있기를 원할 때,
- ④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들이 전체 生活狀況속에서 인간을 볼 수 있으며, 인간문제의 여러가지 次元을 볼 수 있도록 感受性을 높히기를 원할 때.

43) Ibid., pp. 16~18

44) Ibid., p. 3 Marguerite V. Pohek (ed.) "The Teachers Compendium (CSWE)," 1963.

45) Ibid., pp. 20~21

- ①個別社會事業：相克感情，不安，人間關係，葛藤，感情移入，欲求挫折，動機，關係 등과 같은 개념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취급한 作品들을 찾을 수 있다.
- ②社會問題：社會科學者가 제시하는 社會問題들을 定義하고 각각의 問題領域에 대해 쓰여진 作品을 찾을 수 있다.
- ③社會學：役割，地位，逸脫，社會化 등과 같은 개념들을 선택해서 이들을 취급한 作品을 선택할 수 있다.
- ④人間成長과 發達：人間成長과 發達의 各段階를 묘사한 作品을 선택할 수 있다.
- ⑤家族과 兒童및 靑少年福祉：國家의 要求에 관련된 特定關心이나 焦點分野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男性和 女性의 役割變化，基準，夫婦間 葛藤，貧困 등을 취급한 作品을 들 수 있다.

## 2. 作品活用 事例<sup>46)</sup>

Clear교수는 社會問題 科目의 講義計劃書에 參考文獻으로 科學書와 文學書를 함께 소개했다. 그는 貧困，犯罪，失職，民族間이나 文化間 葛藤，賣春，同性愛，精神 및 情緒障礙，都市化 및 人口問題，戰爭 및 國家間 葛藤과 같은 문제들을 취급한 26個의 小說作品이나 傳記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여러 分野에서 10卷을 선택해서 레포트를 내도록 했다. 일반적인 講義組織은 a) 각각의 社會學的 문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公式 講義를 하고, b) 受講者들 중에서 선발된 討論者들이 페널토의 형식으로 교실에서 그 週에 읽은 것을 토론하며, c) 全體 學生들이 參與하여 이 資料의 畧意에 대해 自由討論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47)</sup>

人間關係 教育分野에서 Somerville교수는 創作文學을 이용해서 家族生活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위해 創造的인 構想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의 前半部에서 小說이 教育에서 어떻게 活用될 수 있으며 短篇小說의 선택 및 活用方法등에 대해 일반적 紹介를 하고 있다. 後半部는 男女의 役割變化，靑少年交際와 配偶者 選擇，性基準，未婚父母，結婚生活 適應，父母와 子女關係，兄弟關係，家族體系，老人，死別과 같은 10個의 家族研究內容 分野에 관심을 두었다. 이들 각 분야마다에는 2個 내지 3個의 小說의 전체 내용 要約과 더불어 관련 소설의 目錄이 나와 있으며 이들 요약에는 討論을 위한 主題가 제시되어 있다.<sup>48)</sup>

Coser교수는 社會學의 基本的 概念들을 배울 때 小說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文化，社會統制，社會化，自我와 他人，地位와 役割，階層，權力과 權威，官僚制，家族，群衆，逸脫行動，無規範등에 걸친 概念들을 중심으로 西歐의 19, 20세기의 文學作品

46) 이곳에 紹介된 事例들은 間接資料(UN, op. cit.,)에 依한 것이 많다.

47) UN, op. cit., p. 10

48) Somerville, *Family Insight through the Short Story*, 1964

하고 있다 :

“이 책은 솔직히 實驗的이다. 교실에서 이 冊을 활용해보는 것만이 文學을 통해 社會學을 가르치는 것이 실제로 主題를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지의 與否와 文學的 想像力이 社會學的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 줄 것이다. 筆者는 藝術生活이 人間의 社會生活을 照明하고 있음을 믿는다.”<sup>49)</sup>

Jaffrey교수는 소설이 사회사업에서 活用될 수 있는 方法중 일부를, 個別社會事業과 小說의 關係를 分析하고 소설이 개별사회사업과 교육에 있어서 社會事業에 할 수 있는 貢獻을 토론하는 先驅的 努力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소설이 중요한 概念들을 명백히 하고 說明해 줄 수 있으며 資料에 생기를 주고 學問間 장벽을 깨뜨려서 학생들이 文學과 科學을 現實理解에서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個別社會事業과 文學에서 共通的인 개념들은 相克感情, 不安, 人間相互間 葛藤, 感情移入, 欲求挫折, 動機, 에디푸스 콤플렉스, 性, 社會的·人間的 問題, 사더즘과 世界觀들이다.<sup>50)</sup>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의 뜻있는 교수들이 小說, 詩, 戲曲 등을 선정해서 作品內容 要約과 사회사업 교육을 위해 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개념과 命題들을 제시하고 있다.<sup>51)</sup>

## V. 作品活用の 評價

아세아 諸國의 社會事業 教育者들의 文學作品 活用に 대한 研鑽會 이후에 나타난 評價의 一部가 UN報告書에 나와 있다.<sup>52)</sup> 그 중에서 필리핀에서의 2차 연찬회에서 구성된 分科委員會가 UN에 제출한 文學作品 活用の 效果測定을 위한 豫備調査設計書는 다음과 같다.<sup>53)</sup>

### 1) 問題

社會事業科目(科目番號121)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文學作品은 얼마나 效果的인 가.

### 2) 具體的 目的

- ①이 科目의 目的을 가장 훌륭하게 成就할 수 있는 文學形式을 찾기 위함.
- ②이런 類型의 教育資料들을 活用하는 가장 효과적인 方法을 확인하기 위함.

49) Coser, op. cit., p. 7

50) Jaffrey, "Role of Fic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Casework and Teaching," *Social Work Review*, 1963

51) 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編, op. cit.

52) UN, op. cit., pp. 38~54. 아세아 여러나라의 報告書에 나타난 연찬회 參與者들의 評價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중요한 教育資料源에 敏感하였다. 우리는 이 資料源이 세계의 長點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①固有의 것이라는 것과, ②學生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③理解하기 쉽다는 것이다”

53) Ibid., pp. 47~49, pp. 109~111

③이 科目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形式의 文學作品의 효과를 찾기 위함.

④사회사업 교육에 있어서 문학작품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要因들을 탐색하기 위함

⑤科目의 目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科學文獻에 대한 文學作品의 구체적 有用性을 찾기 위함

⑥文學作品 活用に 있어서의 教授方法論을 찾기 위함

### 3) 假說

①文學作品을 科學文獻과 함께 활용함은 사회사업의 學習過程을 더욱 효과있게 만든다.

②戯曲이나 短篇小說과 같이 보다 集中的이고 現實的인 文學作品은 社會事業의 특수한 概念과 態度들을 더욱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한다.

③科學文獻과 文學作品을 함께 활용하는 授業은 社會事業 概念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한다.

④科學文獻과 文學作品을 함께 활용하는 수업은 人間에 대한 보다 훌륭한 洞察力을 얻게 한다.

### 4) 方法論

擬似實驗設計 採擇：期間은 두 學期이며, 23명의 학생이 無作爲的으로 각각 다른 教室에 10명과 13명씩 配定됨. 實驗集團에서는 문학작품과 과학문헌이 동시에 使用되고 統制集團에서는 과학문헌만 사용됨. 그들은 이 실험의 目的을 모르며 學力試驗, 態度質問紙, 構造化 觀察등을 測定道具로 使用함.

## VI. 結語

지금까지 文學의 門外漢으로서 社會事業教育에서 文學作品을 教育資料로 活用하는 問題에 매달려 探索調의 씨름을 해 왔다. 그래서 이제 겨우 活用の 根據와 基礎를 찾게 되었다.

文學作品 活용을 통한 社會事業 教育資料의 開發은 社會事業과 文學의 目的이나 屬性面에서 상당한 同質性和 補完性을 지니고 있다. 前述한 文學作品의 活用選擇基準, 活用先例, 評價調查設計에 대한 討論에서 社會事業教育의 土着化 및 教育效果 提高의 手段으로서의 文學作品 活用努力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活潑하게 進行되어 왔으며, 活用の 妥當性도, 비록 經驗的 立證結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充分히 存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研究課題는 文學作品의 實際適用研究로서, 教案을 만들고 이를 授業에서 適用하면서 客觀的으로 評價하는 일들이 포함될 것인데 이들은 研究Ⅱ에서 後續事業으로 계속 試圖될 것이다.

附言해서, 學問間 특히 文學分野와의 協同研究와 前述된 諸般 部分論題別 深層研究 그리고 作家中心의 接近을 통한 作品活用の 意義등에 대한 研究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參考 文獻〉

1. 金炳翼·金柱演·金治洙·김 현, 現代韓國文學의 理解, 民音社, 1977.
2. 김 현, “文學이란 무엇인가”, 文學이란 무엇인가(김현·金柱演編), 文學과 知性社, 1977.
3. 南世鎭, “韓國社會事業 敎育課程 開發을 위한 研究”, 韓國社會福祉(韓國社會福祉研究所), 1975년 5월호.
4. 白 鐵, 文學概論, 新丘文化社, 1964.
5. 申東旭, 文學의 解釋, 高大出版部, 1976.
6. 李東烈, “小說의 社會學的 理解—미셸·제라파의 경우”, 世界의 文學, 1976, 여름호.
7. 李明賢,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特殊性과 普遍性—공허한 概念的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文學과 知性, 1978, 봄호.
8. 張仁協, “文學작품을 통한 社會事業敎育”, 文學과 社會事業(韓國社會事業大學協議會編), 蔚文社, 1973.
9. 르네·웰렉 ReneWellek(金炳翼譯), “文學의 本質”, 文學이란 무엇인가(김현·金柱演編), 文學과 知性社, 1977.
10. Boehm, Werner W., “The Nature of Social Work,” *Social Work* (NASW), Vol. 3 (April 1958).
11. Coser, Lewis A. (ed.), *Sociology through Literature: Introductory Reader*, Prentice-Hall, 1963.
12. Eaton, Joseph, “Science, Art, and Uncertainty in Social Work,” *Social Work* (NASW) Vol. 3 (July 1958).
13. Finnegan, Edward J., “Great Literature and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Education Reporter* (CSWE), Vol. XIV, No. 3 (September 1966).
14. Friedlander, Walter A. and Robert Z. Apte,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Prentice Hall, 1974.
15. Jaffrey, Syed R. Hasan, “Role of Fic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Casework and Teaching,” *Social Work Review* (Lahore School of Social Work, Pakistan), 1963.
16. Leavitt, Hart Day and David A. Sohn, *Stop, Look and Write!*, Bantam Pathfinder Edition, 1964.
17. Lee, Porter R., *Social Work as Cause and Fun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18. Pincus, Allen and Anne Minahan, *Social Work Practice: Model and Method*, F. E. Peacock, 1973.
19. Romanyshyn, John M.,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 Random House, 1971.
20. Royce, Joseph R., *The Encapsulated Man: An Introductory Essay on the Search for Meaning*, D. Van Nostrand, 1964.
21. Somerville, Rose M., *Family Insights through the Short Story*, Columbia University, Teacher College, 1964.
22. Stroup, H. H., *Social Work: An Introduction to the Field*, American Book, 1960.
23. UN, *Asian Creative Literature in Social Work Education: A Review of Eight Country Workshops*, 1975.